

INKE(한민족글로벌벤처네트워크) 방콕지부 설립



협회는 지난 3일 한국과 태국의 기업인 정부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방콕 머천코트 호텔에서 INKE(한민족글로벌벤처네트워크) 방콕지부를 설립하고 초대지부장에 방오원 아이니월드 타이랜드 대표를 선출했다. 이로써 인케 해외지부는 뉴욕, 워싱턴, 토론토, 런던, 프랑크푸르트, 뉴델리, 멜버른, 홍콩, 도쿄, 칼라룸푸르, 베이징, 옌지 등 모두 13개로 늘게 됐다. 인케 전하진 의장은 “방콕지부가 양국기업간 수출입과 기술교류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 협회 장흥순 회장(왼쪽)은 지난 3일 말레이시아 칼라룸푸르 니코호텔에서 말레이시아 컴퓨터산업협회(PICOM) 재비어 단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의 IT산업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 협회 장흥순 회장(오른쪽)은 지난 9일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박성주 원장과 벤처CEO 및 임원진 경영능력 향상과 벤처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KAIST - KOVA 최고벤처경영자과정'을 개설하고 이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벤처홍보네트워크, 제4차 정기세미나 개최

협회가 후원하는 벤처홍보네트워크(위원장 박근우)는 지난 5일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에서 벤처 홍보담당자를 위한 '제4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벤처홍보팀 운영 사례를 주제로 1인 홍보팀 운영방안, 홍보대행사 활용방안 등에 관해 비트컴퓨터 송인옥 팀장, 렉스진바이오텍 정종환 팀장, 닉스텍 함재춘 팀장, 예스컴 임희숙 팀장, 미리온시스템 이상운 팀장이 각각 직접 현장에서 습득한 이론과 경험을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